

민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어떻게

광주 동·서·광산구 여론조사 50% + 당원투표 50%

전남, 여성·장애인 후보에 가산점 15%

민주당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이 대부분 확정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은 시민배심원제도와 국민참여경선 2가지 방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광주=5개 자치구 중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동구·서구·광산구 3곳의 자치단체장 경선이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남구와 북구가 제외된 것은 남구의 경우 일제강점기 중앙당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로 선출됐고, 북구는 2명의 지역위원장(김재균·강기정 국회의원)이 합의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북구청장 후보 경선방법을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돌린 것은 김재균 의원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선호하고, 강기정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서·광산구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 결과가 50% 반영돼 체육관 경선이 치러진다.

당원 선거인단 구성은 우대당원 50%와 일반당원 50%로 구성돼 당원 및 조직관리를 꾸준히 해온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난립해 있는 광산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전남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번의 '시합'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공천권을 거머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당 공심위는 우선 경선후보자를 2~3인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1차 후보자 압축에 중앙당이 당원·당규로 정한 후보자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의 배점은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각 40%, 면접 및 실사 20% 등이다. 서류심사는 당 기여도, 정책성, 도덕성, 의정활동 등에 대해 이뤄진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효석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당사 회의실에서 2차 공직자후보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열고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경선방법을 논의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당은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후보자에 대한 공심위 서류심사와 면접이 이어진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 자체에서 배제된다.

후보 압축이 이뤄지면 '당원+주민'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하는 본 '경선'을 치르게 된다.

한편, 도당 공심위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15%, 청년(45세 이하) 후보자에게는 10%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복지·경제·민생 광주로 바꾸겠다”

참여당 이병완 前 비서실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국민참여당 이병완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광주를 정치수도와 문화수도로, 민주주의 성지에서 복지 광주, 경제 광주, 민생 광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실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당 장기 집권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경제도, 비판도, 대안도 발붙일 수 없게 됐다”며 “광주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희망찬 도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광주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으로 두 분께 바쳤던 충성과 지혜, 열정을 이제 광주시민에게 남김없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두자릿수 득표 아닌 당선이 목표”

한나라 김대식 전남지사 예비후보

한나라당 후보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1일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두 자릿수 득표가 아닌, 당선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전남도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호남 정권을 일궈냈지만 전남은 여전히 낙후돼 있고 경제 발전은 말잔치에 그쳤다”면서 “전남도 이제 ‘실속’을 쟁겨야 할 때로, 전남도민의 심부름꾼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의 소통 부재는 지역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남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설득할 힘이 있는 인물을 밀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지방선거 핫코너

나주 농민회 “신정훈 前 시장 부인 주향득씨 출마를”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최근 낙마한 가운데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 전 시장의 부인 주향득씨(47)를 나주시장 시민후보로 추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농민회 등 나주지역 농민·시민단체 등은 최근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 전 시장의 농정개혁과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를 계승할 적임자로 남편과 함께 동지적 유대관계를 이어온 주씨를 추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추대위는 지난 10일 신 전 시장 자택을 방문, 주씨에게 후보 수락을 촉구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시장은 최근까지 “정치를 하는 것은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며 부인의 출마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나 주변의 출마요구가 강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씨가 출마할 경우 낙마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던 남편의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포 사격장 이전 적극 나서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광주산구민의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요구와 관련,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할 경우 이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질의회실에서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되어도 평동 포 사격장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그러나 지자체에서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전갑길 “중앙 배심원단 비율 줄여야”

민주당 전갑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시민배심원제도와 당원전수 여론조사 각 50%를 반영해 시장 후보를 뽑는 방안에 대해 “시민배심원단 중 외지(전문) 배심원단은 중앙당의 임금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배심원단 참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지배심원단이 2시간 정도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말 잘하는’ 후보가 유리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다”면서 “외지배심원단을 대폭 줄이고 현지배심원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을”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1일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절할 것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당 협조를 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사안임에도 되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물러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를 열어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했으나 0.5%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3조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면서 “올해로 이월된 이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화 ‘5·18 기념재단’ 방문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한나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재단을 방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재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5·18 정신의 세계화에 힘 쓰겠다”면서 “광주 정신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후보가 5·18 기념재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변하는 광주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2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양형일 “광역시 개발 적극 추진”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제3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광주 인근의 5개 시군이 동일 교통·생활권으로 묶여진다”면서 “5개 시군 거점별 산업특성과 구상을 구체화 개발계획과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신 메트로 폴리탄-광역시’ 개발 구상 및 추진을 강조했다.



정찬용 “이병완 前 실장 출마 환영”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국민참여당 이병완 교문의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 “40년 묵은 민주당 지지를 바꾸는 광주 투표 혁명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 교문의 출마선언을 계기로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통해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광주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영·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광주) featuring a stylized tree and text promoting the city's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The text includes 'Kwangju, the heart of the country' and 'Kwangju, the heart of the nation'.